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설계의 새로운 Mission: Vision Making and Its Long-Term Design for the Public Realm

김 기 호*

—〈目 次〉—

- | | |
|-------------------|------------------------------|
| I. 서론: 삶의 질과 도시설계 | III. 싱가포르(Singapore)의 도시설계과정 |
| II.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과정 | IV. 결론 |

I. 서론

최근 한국경제신문¹⁾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4년에 세계에서 실제로 10번째의 수출대국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도 6천 52억 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의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세계경제포럼(WEF)²⁾이 발표한 각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ESI)³⁾에서는 우리나라가 총 조사대상국 142개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의 질은 54위를 차지하였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139위를 차지하였고, 마찬가지로 환경적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에서도 138위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이 이렇게 나쁜 성적을 가지게 된 이유는 WEF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현재의 열악한 환경보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환경과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한국이 세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1)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신문들은 2005년 1월 3일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주요 국가 간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 지표> 자료를 기사화 하였다.
- 2) WEF(World Economy Forum)는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연차총회의 통칭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비영리재단이다.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 3)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환경개선과 환경정책의 성공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을 위해 고안된 지수로 environmental system(air, soil, ecosystem, water), Environmental stresses, Human vulnerability, Soci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Global stewardship의 총 5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상대적인 값들을 점수화 한 것이다.

World Economic Forum		
Rank	Country	ESI
1	Finland	73.9
2	Norway	73.9
3	Sweden	72.6
4	Canada	70.6
33	France	55.5
45	United States	53.2
50	Germany	52.5
78	Japan	48.6
129	China	38.5
136	South Korea	35.9

평균에 뒤진 것은 한국인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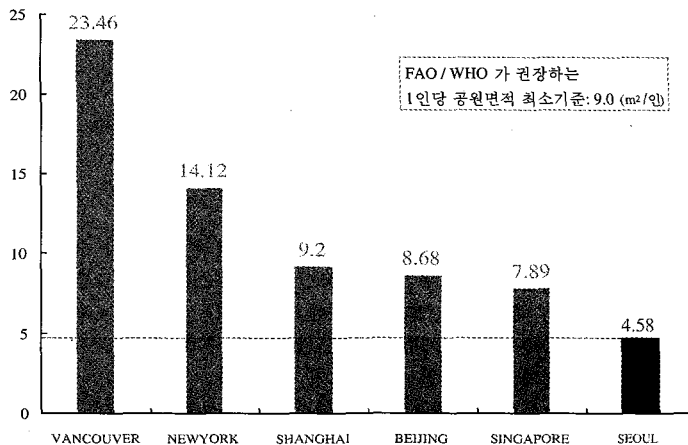
최근 서울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상계층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들이다. 양재천과 선릉로가 만나는 곳에는 2,590세대의 주상복합 프로젝트인 타워팰리스가 들어섰다.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규모는 2조 4,000억원(약 24억 불) 수준이 된다. 한강변 동

〈그림 1〉 WEF 환경지속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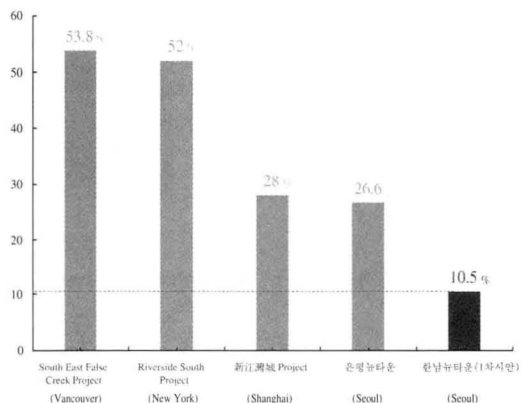
부 이촌동 지역에도 656세대의 재건축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총사업규모가 5,600억원(약 5.6억 불) 정도가 된다. 용산공원 주변에도 770세대의 시티파크 프로젝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규모가 9,200억원(약 9.2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서울의 한강과 양재천 주변에, 물론 매우 선택적이지만,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의 경제적인 규모가 4조원(약 40억 불)에 육박하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물론 매우 제한적이지만, 한강변과 양재천을 따라서 발생하는 주거건축의 개발규모를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해본다고 해도 세계에서 1, 2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발들을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142개국 중에서 과연 몇 번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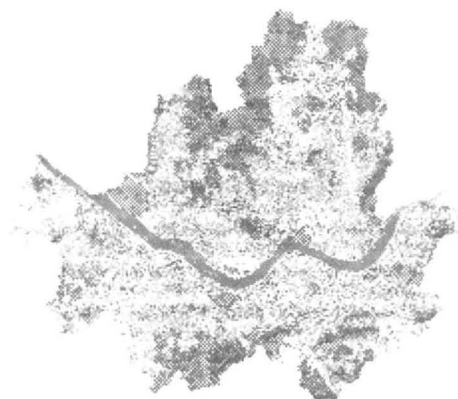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을 들여다보면 1인당 공원면적에서 서울은 15.38m²/인으로 면적상 세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즉,



〈그림 2〉 도시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비교



〈그림 3〉 도시별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시 공공오픈스페이스 확보 면적 비교



〈그림 4〉 서울시 공원현황
시 외곽에 분포된 산들 이외에는 도시내부에 조성된 일부 대형 공원이 녹색섬처럼 보이고 있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은 $4.58\text{m}^2/\text{인}$ 에 불과하다. 이는 FAO⁴⁾와 WHO⁵⁾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의 최소 기준인 9.0m^2 의 절반을 겨우 넘는 면적이다.

녹색 공간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은 경쟁도시들에 뒤떨어져 있다. 우선, 광역적으로 본 서울의 녹색 공간은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도시내 공원녹지는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

반면, 벤쿠버나 뉴욕, 싱가포르, 상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녹지 면적은 물론이고 녹지의 위치와 집중도에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뉴욕은 허드슨 강과 인접하여 오픈스페이스를 배정하였고, 벤쿠버는 펄스 크릭(False Creek)쪽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집중하여 배치하였다. 싱가포르도 마리나베이에 인접하여 넓은 폭의 그린웨이를 조성하였고, 상해 또한 황포강을 시작으로 습지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였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양상은 주요 프로젝트의 공공오픈스페이스 면적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 3〉은 각 도시 주요 프로젝트들중 수변(Waterfront)이라는 중요한 오픈스페이스에 연접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를 비교한 것인데, 벤쿠버의 싸우스 이스트 펄스 크릭(South East False Creek) 프로젝트와 뉴욕의 리버사이드 싸우스(The Riverside South) 프로젝트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의 다운타운 마리나베이 프로젝트가 37%, 상하이의 신강만성 프로젝트가 28%의 공공오픈스페이스

4)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력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5)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건, 위생 분야의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전문기구로써 세계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5〉 밴쿠버, 뉴욕, 싱가포르, 상해의 주요프로젝트

왼쪽부터 South East False Creek 프로젝트(밴쿠버), Riverside South 프로젝트(뉴욕), Downtown@Marinabay 프로젝트(싱가포르), 신강만성 프로젝트(상해)이다.

스를 조성하는 반면, 서울 한남뉴타운은 약 11%⁶⁾에 불과하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볼 때, 서울은 경제적인 개발규모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 측면과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의 실제적인 1인당 공원면적이 세계 기준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강변과 양재천 주변에 주거개발을 위해서 거대한 경제투자를 하면서도,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도시환경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환경비전 2020을 수립하고 있고, 동시에 기성시가지에 뉴타운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계획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공원 및 도시오픈스페이스들이 계획되고 있을까? 장기적으로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서울의 한강변,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강북도심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우리가 이들의 모습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플랜(Long-Term Vision Plan)”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한강변 개발에서 656세대의 한강 조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1000만 시민의 남산 조망권을 훼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에서 공익의 희생 속에서 주민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서울의 도시개발에서 공익적 요소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프로젝트를 돌아볼 때, 도시개발에 관련된 현행 법제도 또는 운영방법이 “좋은 사례(Good Practice)”를 만들 어낼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II장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및 운영방법, 그로인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서울과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어떻

6) 한남뉴타운의 공공오픈스페이스 면적은 작성중인 초기계획안을 참고로 하였다.

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IV장에서는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우리들의 새로운 사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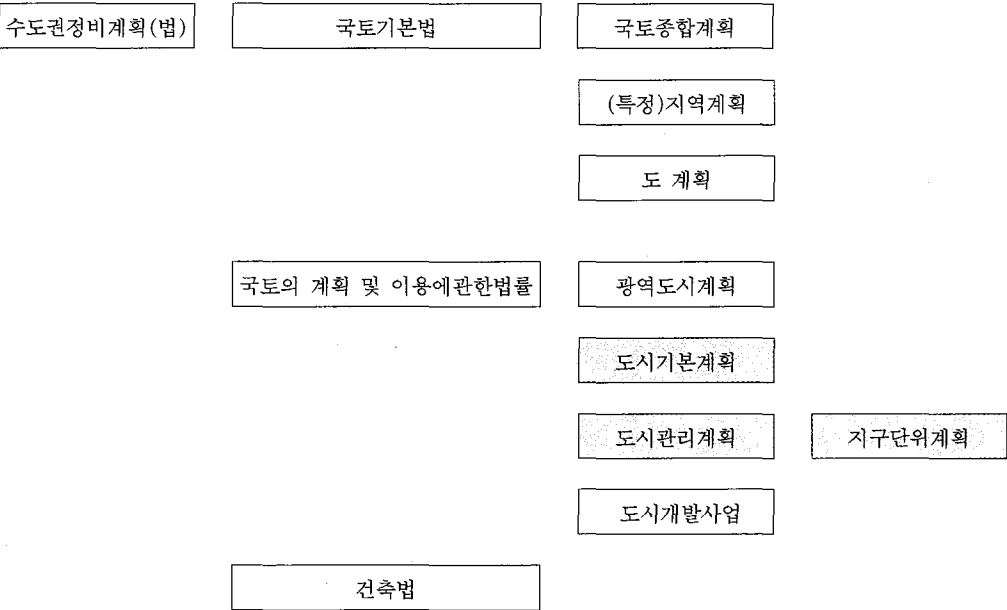
Ⅱ.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과정

1.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스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설계는 크게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 및 도 단위의 광역적 계획에서 시 단위의 지역적 계획으로 그리고 지역내 지구 단위의 계획으로 세부화된다.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도시설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 계획으로 개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지침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제어 수단을 제시한다. 즉, 도시관리계획은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개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 규제하는 법정 계획이다.



〈표 1〉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스템

제도적으로 훌륭한 계획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고 단순히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을 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의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과 함께 비도시계획사업의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산업법) 등도 포함된다.⁷⁾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고 바로 도시환경에 투영되는 최종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스템 운영의 문제: 단기적인 계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적인 완결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훌륭한 계획 및 설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들이 장기적인 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수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히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을 배치하는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또한 구체적인 단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규제 일변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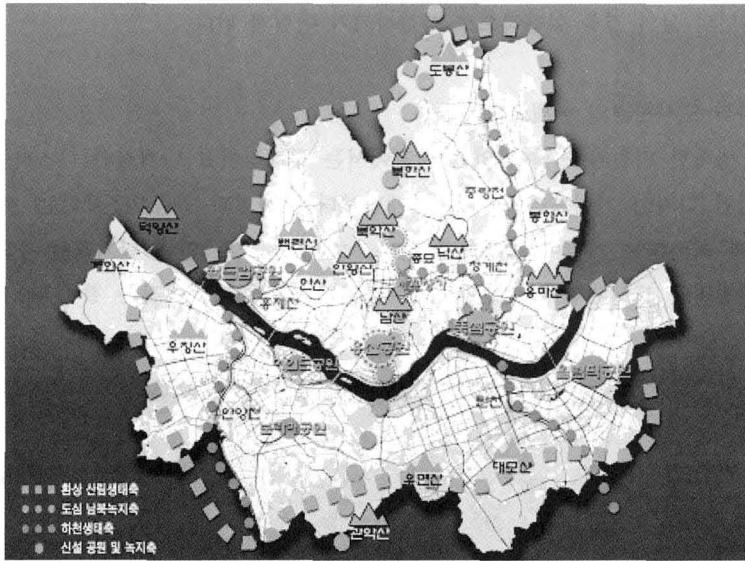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도시기본구성도(2011)

서울의 비전과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토지이용과 교통망, 중심지위계 등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11.

7) 박재길, 조관기(2003), 도시계획체제의 패러다임과 변화방향, 국토연구원.



〈그림 7〉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中 공원녹지축 구상

이 구상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그치고 실제로 공원녹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자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



〈그림 8〉 서울시 뉴타운개발사업 지구 지정현황

〈그림 7〉의 공원녹지축 구상과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뉴타운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단위계획도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게 된다.

3.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현재모습

장기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발보다는 시민과 공공부문보다는 토지소유자와 민간개발자에게 의존하는 개발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성 위주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도시개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층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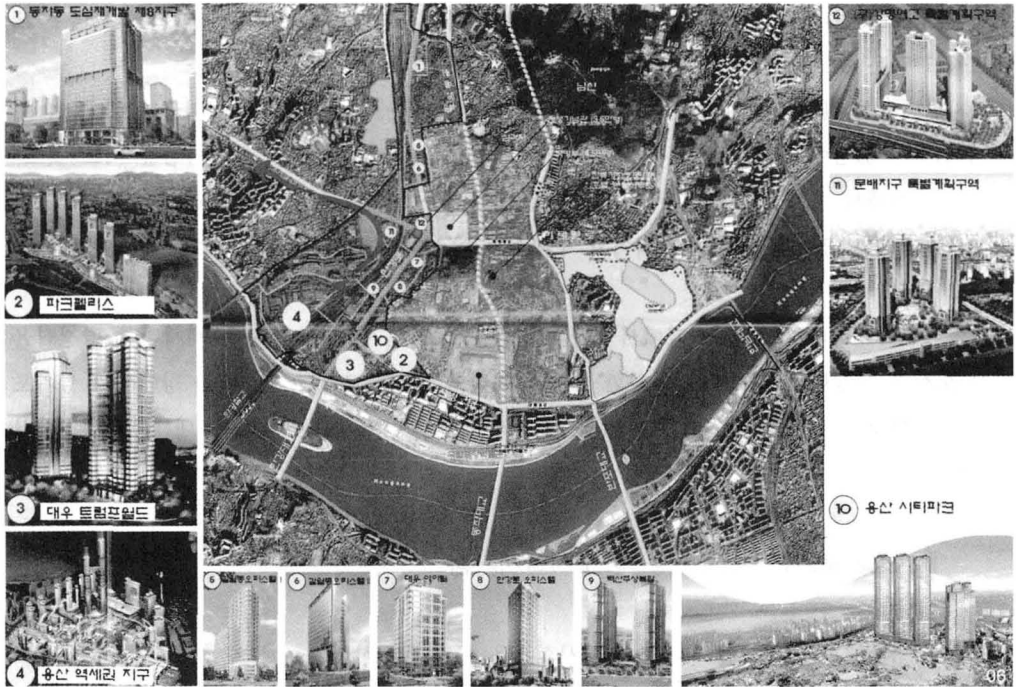


〈그림 9〉이촌동 아파트지구 현황

벽을 이룬 높은 고층아파트로 인해 남산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들이 한강변 경관을 독점함으로써, 시민의 공간인 한강시민공원을 시민들과 단절시키고 있다.



〈그림 10〉서로 연계성이 없는 서울 강북의 주요 개발사업



〈그림 11〉 용산공원 주변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개발 움직임

민간 개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도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트로 둘러싸인 도시경관과 절대 부족한 공원녹지, 시민 이용에 불편한 공공오픈스페이스, 교통 정체 및 환경문제 등 열악한 도시환경을 만들게 된다.

실제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이나 서울숲, 남북녹지축의 중앙에 위치한 세운사가 주변 4개 블록 계획안 그리고 한남 뉴타운과 같은 사업들은 모두 앞에서 제시된 그림 2020 서울 공원녹지축 구상도에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각 사업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계획되며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광역적·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연계되지 못한 도시개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오픈스페이스가 녹색섬처럼 고립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용산’이라는 좀 더 작은 공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용산 일대는 용산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미군기지의 서쪽에 위치한 용산역과 남영역을 중심축으로 용산부도심 개발(100만평)이 추진중이고, 철도기지창 부지에는 국제업무지구(18만평) 계획이 잡혀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이태원지구단위계획(7.8만평)과 한남뉴타운(33만평)계

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일보사 부지의 용산 시티파크를 중심으로 파크펠리스나 대우 트럼프월드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건설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용산 일대에는 서울의 허파와도 같은 한강, 남산, 용산공원(용산 미군기지) 등이 바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왕성히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들 어느 것도, 용산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 기능 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도시의 미래 그리고 공익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도시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도시환경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Ⅲ. 싱가포르(Singapore)의 도시설계과정

작은 면적이지만 세계적인 경쟁력과 도시환경을 가진 아시아국가... 싱가포르

동아시아 중심도시를 놓고 서울과 경쟁하는 도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려 60여 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모인 나라로, 본 섬의 총면적은 약 640km²이고, 전체 면적은 685.4km²로 서울(605.52km²) 보다 조금 큰 나라이다. 인구도 4,233,000명(2003년)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계 주요 정유 및 물류센터의 하나로 성장하였고, 1인당 GNP가 21,500\$ (2003년)에 이르는 부국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쇼핑의 도시이자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 금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성장경쟁력이 세계 7위⁸⁾로 평가받을 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싱가포르가 작지만 큰 나라로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클린 앤드 그린(Clean & Green)’ 정책을 추구하는 도시환경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깨끗한 거리와 맑은 공기, 편리한 교통과 보행공간, 열대의 녹음과 아름다운 꽃, 훌륭한 오픈스페이스 등의 도시환경이 다양한 문화와 축제, 음식, 우수한 호텔 등과 어우러져 세계 유수 기업과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싱가포르를 찾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과 비슷한 고밀 조건에서도 “정원도시(Garden City)”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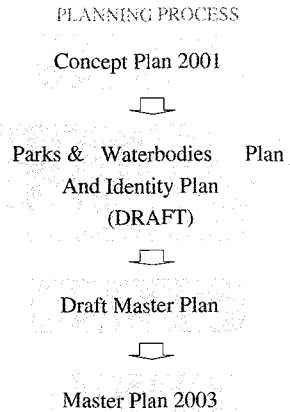
8) WEF에서 세계 10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7위, 한국은 29위를 기록했다.

1. 그들은 어떻게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나: 장기적인 비전설정과 마스터플랜 작성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크게 컨셉플랜(Concept Plan)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 진행된다.⁹⁾ 컨셉플랜은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40~50년 후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마스터플랜은 5년 단위의 법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control)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다. 즉, 마스터플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라면, 컨셉플랜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희망을 담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설계과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까지는 컨셉플랜의 기초 하에 공원및수변계획(Park & Waterbodies Plan) 및 각 지역의 아이덴티티계획(Identity Plan)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만든 후,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치게 된다. 컨셉플랜에서 마스터플랜까지 모든 계획과정은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¹⁰⁾이 주관하여 작성한다.



1) 컨셉플랜(Concept Plan)

컨셉플랜은 1971년에 최초제정 되었고, 10년마다 재정비되어 최근에는 2001년에 재정비가 완료되었다. 대규모(Large-scale)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교통에 대한 장기적인(Long-term) 전략 및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계획인 마스터플랜보다 인구 및 맥락 변화에 융통성이 있고 성장 트렌드에 민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계획이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01년 컨셉플랜은 ‘21C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Toward A Thriving World Class City in the 21st Century)’를 비전으로 삼고, 주택·여가·업무·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풍부한 녹지공간 속의 편안한 거주환경과 국제 업무를 위한 융통성 있는 조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토지이용과 교통,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등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컨셉플랜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모든 계획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된

9)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컨셉플랜(Concept Plan)은 도시기본계획에, 마스터플랜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된다.

10) 도시재개발청(URA)은 싱가포르 국가개발청(MND) 산하기관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설계조직이다. 싱가포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명과 꿈을 바탕으로 해서, 컨셉플랜(Concept Plan)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 그리고 상세한 개발지침계획(guide plan)을 수립하고,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림 13〉 싱가포르 Concept Plan 2001

자료: URA 홈페이지.

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시 여긴다.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인터넷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 그리고 다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난 후 최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총 1년의 기간을 소요한다. 실제로, 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특정한 용도로 개발될 지역, 그리고 각 개발사업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화이트 존(White Zone)¹¹⁾ 등을 구분하여 표현함으로써 각 지역의 개발양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의 컨셉플랜은 신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모든 계획요소들을 통합하여 짜임새있게 계획함으로써 계획취지와 도시의 미래상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2) 공원 · 수변계획과 아이덴티티계획 (Park · Waterbodies Plan & Identity Plan)

공원 · 수변계획과 아이덴티티계획은 어떻게 지역적인 정체성과 역사를 가진 장소들을 이해하고 자연적인 자산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계획들은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마스터플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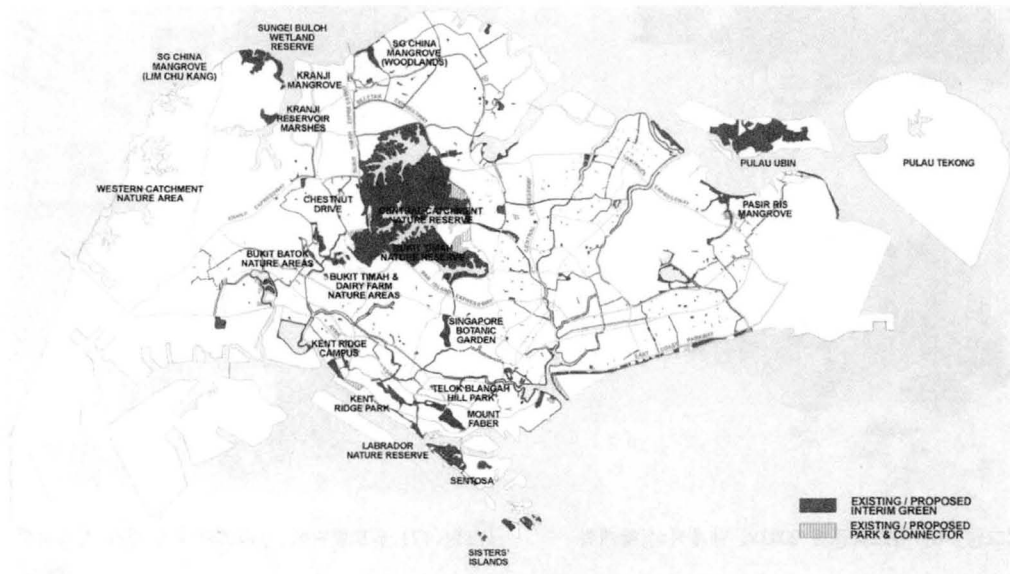
11) 화이트 존은 도시계획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개발시 용도 및 밀도에 융통성을 부여한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림 14〉 싱가포르 그린웨이의 모습들

싱가포르 시민 누구나 녹지에 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자료: URA, Skyline.



〈그림 15〉 싱가포르 Park & Waterbodies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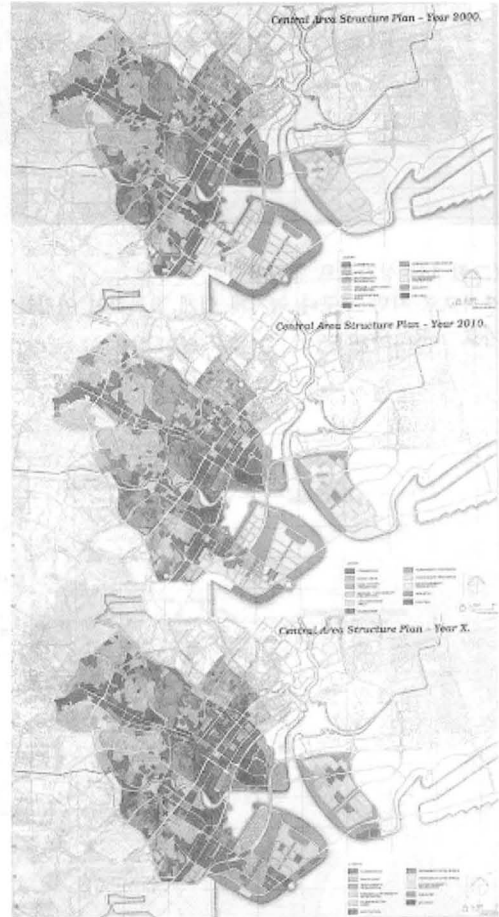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녹지와 계획된 녹지는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공원 및 연결망은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료: URA, Skyline.

특히, 공원·녹지계획은 국가 전체적인 녹지·수변 네트워크 계획 하에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공공오픈스페이스와 워터프론트(Waterfront)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된 도시개발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을 차근차근 실현시키고 있다.



〈그림 16〉 마스터플랜 2003의 단계적 실행계획



〈그림 17〉 센트럴지역 전략계획의 단계적 실행계획

3) 마스터플랜 초안: 개발지침계획(DGPs: Development Guide Plans)

싱가포르 컨셉플랜의 완성과 함께 마스터플랜의 작성을 위해 상세하게 계획한 것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각 구역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전에 대한 전략이 있고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이 있다. 컨셉플랜의 광범위한 비전을 명확한 제안으로 구체화하였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총 55개의 개발지침계획이 작성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만들게 된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토지이용, 교통, 공원/오픈스페이스, 높이, 보행연결 등이 포함되고, 용적률, 높이, 도로체계,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보존지침계획(Conservation Guide Plans), 도시설계지침계획(Urban Design Guide Plans), 가로블록계획(Street Block Plans) 등의 세부계획이 있다.

계획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확실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발가들에게 지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승인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4) 마스터플랜(Master Plan)

개별필지의 토지이용 및 밀도에 구체적인 지침을 가진 법정계획(10~15년의 중기계획)으로 도시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다. 앞서 수립된 컨셉플랜과 공원 및 수변계획, 아이덴티티계획, 개발지침계획(DGPs)의 전략과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매 5년마다 재정비한다.

싱가포르의 마스터플랜은 1958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80년대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5개 지역 마스터플랜과 55개 개발지침계획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다.¹²⁾ 즉, 서부·북부·북동부·동부·센트럴지역 등 5개 지역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각의 전략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각 지역 내 세부 블록 계획은 마스터플랜의 용도와 밀도 등의 계획을 토대로 블록별로 상세한 계획을 하는 것이다.

2003년 마스터플랜을 보면, 2000년-2010년-2010년 이후 등 3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각 지역들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 수립위원회(MPC: Master Plan Committee)에서 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도시재개발청(URA),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와 같은 정부기관과 토지수송공사(Land Transport Authority), 주룽 코퍼레이션(Jurong Town Corporation),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토지국(Land Office), 주택재개발청(HDB)과 같은 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싱가포르의 모든 토지들이 가장 적합한 토지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개발지침계획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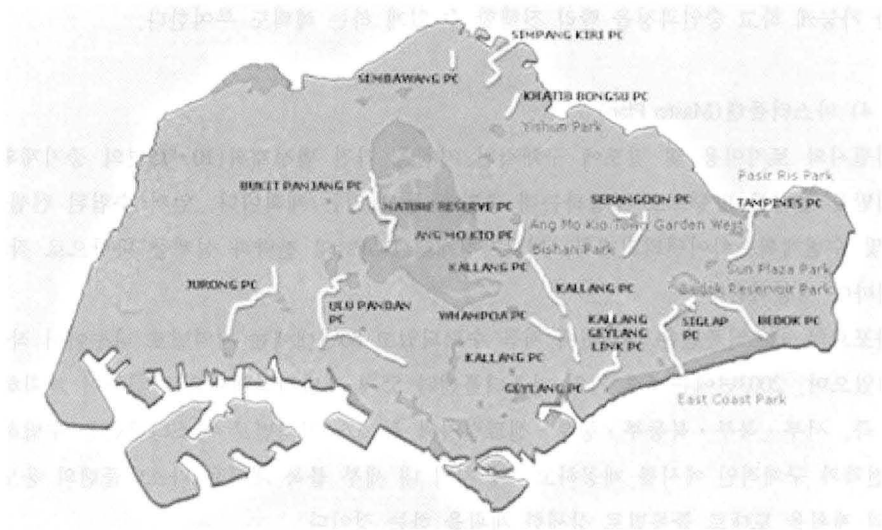
2. 그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공공영역 및 그린웨이(Public Realm Design and Greenways)

1) 녹지·수변계획(Green and Blue Plan)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설계에서 뛰어난 부문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원과 그를 있는 그린웨이에 대한 부분이다. 그 결과로, 298개소 총 18km²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였고, 1인당 공원면적도 7.89km²로 서울(4.58km²)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싱가포르의 녹지 및 수변계획은 우선 국가 전체의 녹지 및 공원,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계획하고 이들 장소들을 그린웨이(Greenways)로 네트워크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녹색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그린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우리나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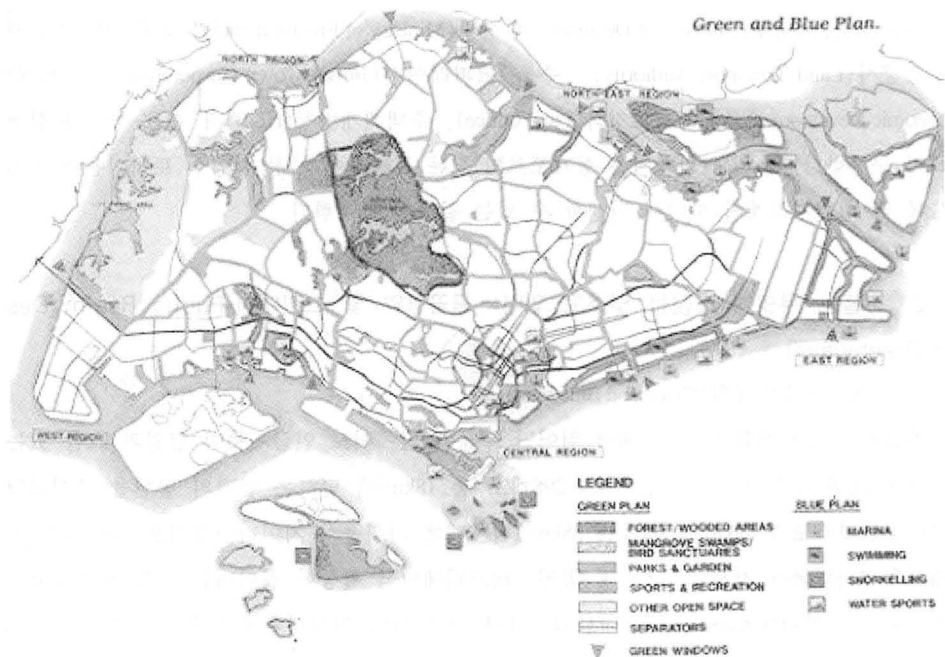
12)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마스터플랜은 도시관리계획에, 개발지침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한다.



〈그림 18〉 공원 네트워크 계획

공원 및 수변계획에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

자료: URA, Skyline.



〈그림 19〉 싱가포르 녹지 및 수변계획

녹지, 공원, 경관, 여가활동 등을 연계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보여준다.

자료: URA, Skyline.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다이어그램적인) 계획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녹지·수변계획은 면으로서의 녹지와 점(Node)으로서의 크고 작은 공원, 그리고 선으로서의 그린웨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여가공간 및 광장 등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그린웨이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주요 조망창(Green Windows)이 되는 곳을 설정하여 시각통로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서 오픈스페이스계획과 경관계획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녹지·수변계획은 ‘어느 시기에 어떤 구간을 연결한다’ 식의 단계적인 네트워크 실천계획을 가짐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이 가질 수 있는 추상적인 면을 보완하며 계획의 실천성과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2) 공공 오픈스페이스 및 워터프론트 계획(Public Space & Urban Waterfront master plan)

싱가포르 전체의 녹지 및 수변계획(Green and Blue Plan)은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공공공간(Public Space)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마스터플랜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센트럴 지역의 마리나베이 일대를 예로 들면, ‘국제 경쟁력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공공간 및 수변지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잠재적인 녹지조성을 위한 공간까지 고려하여 매우 상세한 그린웨이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별모양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잠정적 용도(interim uses)¹³⁾로 지정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용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발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속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자율과 규제를 적절히 병행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실천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면서 공원을 많이 확보

〈표 3〉 공원 녹지 조성 가이드라인

	기존 가이드라인	신규 가이드라인
공공녹지 (Public Green Space)	전체 개발면적의 10%	상향조정
민간녹지 (Private Green Space)	전체 개발면적의 20%	상향조정
완충녹지 (Green Buffer)	6m 공공녹지, 공공도로 3m Common Boundaries	구역경계를 따라 최소한 2m 이상의 녹지조성

13) 차후 개발될 부지에 대해 잠정적 용도를 정해서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기본계획(Concept Plan)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 보트키 앞 수변공간



〈그림 24〉 마리나베이 산책로



〈그림 25〉 이스트코스트 파크 그린웨이



〈그림 26〉 그린웨이의 모습



〈그림 27〉 싱가포르의 보행로



넓은 보도 폭과 울창한 가로수, 수경시설 등으로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주는 그린웨이가 된다.



〈그림 28〉 시청앞 공원(Padang)의 모습

워터프론트 그린웨이의 출발점이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스마트한 녹색계획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여유로운 녹색 수변공간은, 차량도로와 아파트로 점유된 우리나라 한강변을 생각할 때,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를 우리를 훨씬 앞서, 풍부한 녹지와 공원이 바로 국가 및 도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강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한단계 한단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싱가포르가, 고밀개발을 해야 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녹색이 풍부한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반이 된 계획·설계 과정 및 마스터플랜, 그린웨이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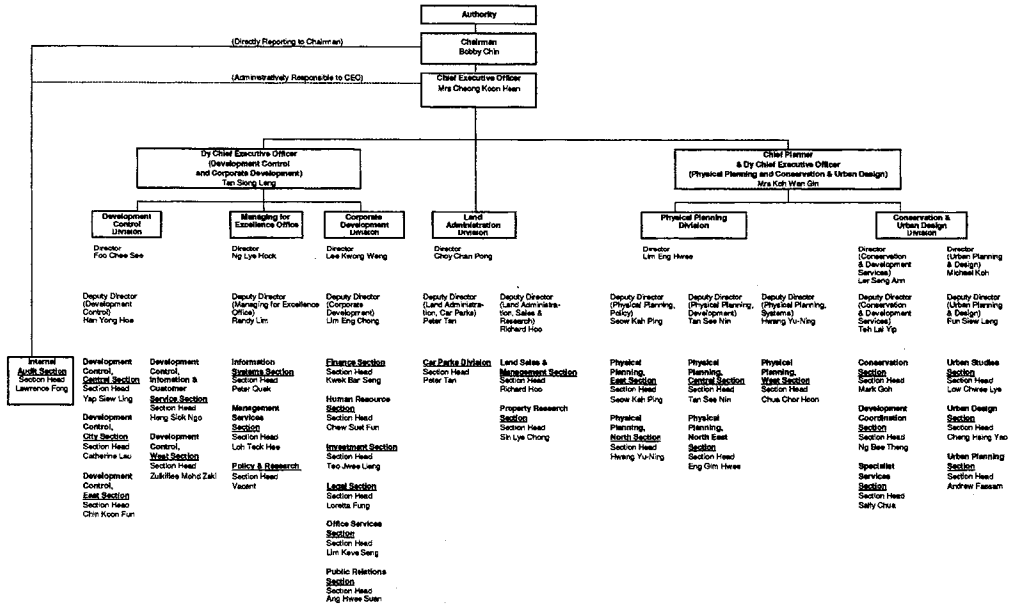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싱가포르의 도시설계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다음 절에서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알아보기로 한다.

3. 누가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나: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도시재개발청)

URA는 싱가포르 도시환경의 설계, 개발 컨설팅까지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URA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도시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있다.

1) URA의 개요

싱가포르의 도시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URA는 싱가포르를 '생활하고, 일하



〈그림 29〉 URA 조직도

자료: URA 홈페이지.

고, 즐기기에 훌륭한 도시로 만드는 것 (Make Singapore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을 사명으로 하며, 미래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RA는 197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의 산하기관으로,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 1000여 명이 총 5개부서¹⁴⁾로 나누어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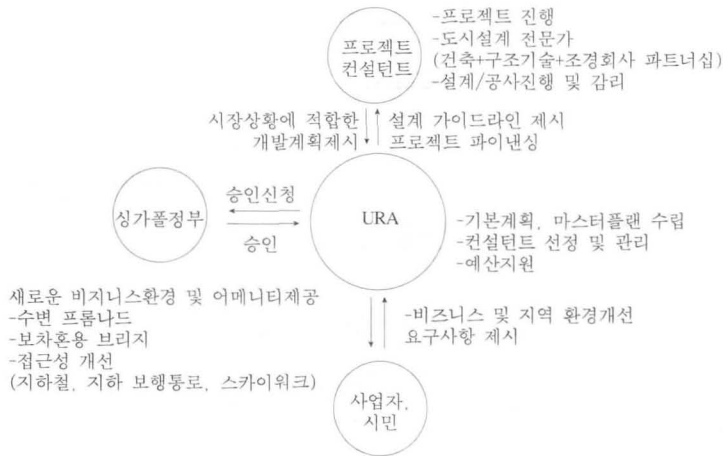
URA는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탄탄한 설계조직을 기반으로 싱가포르의 물리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 개발지침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개발 컨설턴트(Development Agency) 역할을 맡고 있다.

2) URA의 역할과 운영방법

싱가포르에서는 공공부문이 도시계획·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발가와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URA는 도시설계의 의도와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가에게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해주며, 개발가의 프로젝트 파인넌싱이나 민원사항, 인허가 등에

14) 개발조정부(Development Control Division), 협력개발부(Corporate Development Division), 토지행정부(Land Administration Division), 계획 및 설계부(Physical Planning Division), 보존 및 도시설계부(Conservation & Urban Design Division).



〈그림 30〉 URA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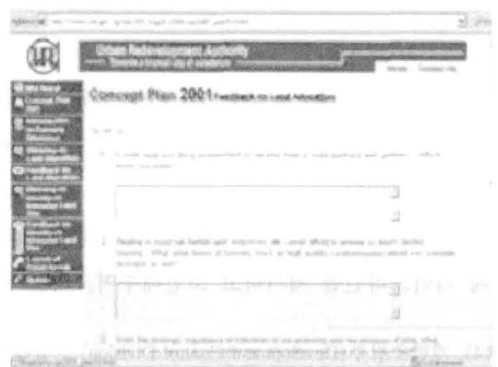
〈그림 31〉 Focus Groups: 전문가 의견 청취



〈그림 32〉 Public Dialogue: 시민과 함께 대화



〈그림 33〉 계획에 대한 상сед면 전시



〈그림 34〉 인터넷 의견 게시판 피드백



〈그림 35〉 URA 로비

URA의 계획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림 36〉 URA 자료실 내부

다양한 종류의 도시, 건축 관련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앉아서 읽고 쉴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다.



〈그림 37〉 센트럴 지역의 중심업무지구 모형

싱가포르 전체 모형은 물론, 주요 지구의 상세한 모형을 전시하여,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새롭게 개발되는 곳은 계획 모형을 수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URA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및 개발권 경매제도, 화이트 존 등과 같은 유연한 제도에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도시설계 혹은 개발계획이 장기적인 전략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구역에서 개발가가 주택개발을 할 경우, 해당 개발가는 특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규모는 사전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설정되어 있고, 납부된 개발부담금은 URA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결정한 필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권은 경매를 통해 부여된다.

물론, 이와 같은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설계 및 도시개발은 규제 중심의 경직된 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가져올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고 적극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개발시 용도 및 밀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하는 등 시대 및 개발 트렌드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커뮤니티에 기반한 계획(Community-Based Planning)

싱가포르에서는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매우 중요시 하고, 계획 및 설계안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계획 및 설계안을 일반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은 URA 건물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건물의 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서는 URA의 모든 활동이 일반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다.

싱가포르 전체와 주요 도심지를 안내하는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과 싱가포르 전역의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 보고서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자료 전시 홀에서는 URA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직접 발행한 책자들도 볼 수 있다. 2층 자료실에는 어느 도서관 못지않은 많은 도시·건축 관련 서적이 있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대학에 도시 관련학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도시설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시민 누구나 이곳에 와서 자신의 도시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관광책자에도 이곳이 소개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장소이다.

IV. 결론

WEF의 평가를 보고난 후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특히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에서 10번째이면서도, 도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지속성 분야 측면에서 세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환경분야를 들여다보면, 서울 한강이나 양재천 변의 대규모개발 프로젝트의 건설투자규모는 세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면서도, 도시장소(Urban Place)의 질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최하위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과정에 도시설계가 깊숙하게 개입하여 이들 프로젝트들을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가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도시설계의 새로운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첫째, 우리나라에서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우선 FAO/WHO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둘째, 한강, 남산, 양재천 같은 훌륭한 자연 어메니티로의 시민들의 보행접근을 증진시키며, 셋째, 도시(재)개발에서 직장, 주거, 상업시설과 학교, 공원을 근접시키도록 한다. 도시설계가 이러한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도시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 결과로 우리 도시의 경쟁력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설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마스터플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제와 그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설정(Long-Term Vision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우리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계획과정에서 컨셉플랜(Concept Plan)과 공원 및 수변계획(Parks and Waterbodies Plan), 아이덴티티 계획(Identity Plan), 그리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 개발지침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 계획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주요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식적인 비전설정과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서 개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수용해야 할 공공공간계획을 개발사업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히트 앤 런(Hit and Run)의 소모적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도시 및 지역의 탄탄한 미래상을 토대로 하여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단계별로 시스템적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

다. 또한, 민간개발가의 입장에서 공공부분의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이를 따르면 개발과정 및 승인절차에서 공공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익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함께 조화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시민들을 위한 녹색 공공공간(Green Public Open Space) 조성

도시민의 삶의 질은 단순히 높은 가격의 주택을 한강이나 양재천 주변에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주거 세대 차원에서 평수를 늘리고, 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거단지와 도시 차원의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이 맞물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거단지 내의 공공공간(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이 먼저 확보되고 면밀하게 설계될 때, 주민들과 더 나아가서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총 사업비의 대부분을 건물내부, 더 나아가서 주거세대 내부에 투자하였다. 하지만, 단지와 주변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의 도시환경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데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적공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가 개별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환경이 환경지속성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싱가포르의 고밀로 개발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 및 그린웨이를 기반으로 한 질 높은 도시환경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발에 앞서 시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우선 조성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아파트부터 건설하고 차후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개발에 착수하기 전 공공부분이 투자하여 공원이나 산책로 등 핵심이 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광역 그린웨이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풍성한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 사명감(Mission)과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가진 도시환경설계조직

싱가포르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만일 싱가포르의 계획과정을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설계가/계획가들이 모여 있는 URA라는 설계조직이 없었다면,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체제를 가지고 싱가포르의 URA와 같은 전문설계조직이 공공부분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다면, 우리 서울의 도시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한 나라 또는 한 도시의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좋은 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도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URA에 가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꿈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비전계획(Vision Plan)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사명¹⁵⁾은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에서 “공공영역(The Public Realm)”을 설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도시환경은 그들의 경제규모에 합당하게 세계적으로 상위에 속해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또는 다른 경쟁국과 같이 공공영역의 도시환경설계 부문에 능력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전문적인 설계가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사업비용의 5% 이내에서 도시환경설계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공영역 설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시작할 때이다.

V. 참고문헌

- 김기호(2003).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 비영리조직 설립의 필요성, 환경논총 제4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기호(2002).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의 현실과 새로운 사명, 환경논총 제40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기호(2000). 도시설계의 질적 향상과 도시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제언, 환경논총 제38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Kang, Minnie(2004). A Study of Strategies for Provision of Public Space of the Urban Mixed-use Projects in Singapore.
- 서울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
- URA(2001). Concept Plan 2001.
- (2001). “URA Introduces New “Business Park-white” Zone and Relaxes Guidelines for Business Park, Industrial and Warehouse Developments”.
- (2000). “Concept Plan Review - Final Report on Focus Group Consultation: Land Allocation Report”.
- (1998).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Towards a Tropical City of Excellence,” Singapore: URA.

15) 구체적으로는 ‘도시를 살기 좋게, 일하기 좋게, 즐기게 만든다’는 사명(mission)을 가지고, 계획하는 기능과 더불어 이를 촉진하는(Facilitating) 역할까지 맡고 있다.

——(1991), “Living the Next Lap”, Singapore: URA.

Brennan, R.(1997), “URA creates a new entertainment area in the heart of the city”. Skyline, July/Aug.

Chua, B. H. (1998), “World Cities,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consumerism: a view from Singapore”, Urban Studies, 35: 5/6, pp. 981-1000.

The planning act(2003), “Master Plan written statement,” Singapore Government.

<http://www.ura.gov.sg>(싱가포르 URA 홈페이지)

<http://pps.org>(Project for Public Space 홈페이지)